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민 병 찬**

目 次

1. 들어가기
 2. 현대 외래어 표기법
 3. 『浮雲』에서의 외래어의 처리
 4. 외국자료에서 보이는 표기상의 경향
 4. 1. 가나 조합형
 4. 2. 부호 사용형
 5. 마치며
-

1. 들어가기

일본어를 문자를 통해 시각화하는 방식 가운데 가타카나가 채용된 역사를 살펴보면 멀게는 한문 훈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고, 가깝게는 1991년 내각고시 『外來語の表記』를 들 수 있다. 그 태생적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이겠지만 현재 가타카나 표기는 주로 비 고유어를 수용하는 과정, 즉 외래의 것을 일본어(和語)화하는 과정에서 채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말들은 점차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지 고유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가타카나어라는 이름을 새로이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어 운용상에 있어서의 그 기능적인 면에 주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가타카나어의 표기 방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적 추이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즉 현재는 정책상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정서법이 사회 일반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보니 표기상의 혼동·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그다지 없지만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 양상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가타카나를 통한 표기 상황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소위 외국자료 속에서 외래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자화되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041-A00405)

** 인하대학교 조교수 일본어사

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가 갖는 음운론상의 공백을 뛰어넘어 가급적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표기 방식이 정착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현대 외래어 표기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어는 「ア, カ, サ, タ, ナ」「キャ, キュ, キョ」「ジャ, ジュ, ジョ」 등의 가나에 대응하는音を 기본단위로 하는 음절문자를 갖고 있다. 그 종류는 현대의 소위 和音과 漢語에 대한 直音, 拗音を 합해서 100개, 그리고 여기에 撥音, 促音, 長音이 더해진다.

외래의 말을 가타카나화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음이 쓰이게되는데, 외국어의 原音에 따라서는 현재의 和語나 漢語에는 없는 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맞는 특별한 가나 표기가 시도되어 왔다. 예컨대 「フィルム」의 「フィ」, 「ダイナー」의 「ディ」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에 대한 가나 표기는 1991년에 제시된 소위 「内閣告示」『外來語の表記¹⁾』에 준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내각 고시에서는 먼저 「『外來語の表記』に用いる仮名と符号の表」를 제시하고 있는데, 「外國の地名・人名を書き表すのに一般的に用いる仮名」라 하여 다음에 보이는 「第1表」를 들고 있다.

1) 그 「留意事項その1」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의 원칙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1. この『外來語の表記』では、外來語や外國の地名・人名を片仮名で書き表す場合のことを扱う。
2. 「ハンカチ」と「ハンケチ」、「グローブ」と「グラブ」のように、語形にゆれのあるものについて、その語形をどちらかに決めようとはしていない。
3. 語形やその書き表し方については、慣用が定まっているものはそれによる。分野によって異なる慣用が定まっている場合には、それぞれの慣用によって差し支えない。
4. 國語化の程度の高い語は、おおむね第1表に示す仮名で書き表すことができる。一方、國語化の程度がそれほど高くない語、ある程度外國語に近く書き表す必要のある語—特に地名・人名の場合—は、第2表に示す仮名を用いて書き表すことができる。
5. 第2表に示す仮名を用いる必要がない場合は、第1表に示す仮名の範囲で書き表すことができる。

例) イエ→イエ ウォ→ウォ トウ→ツ ヴァ→バ

6. 特別な音の書き表し方については、取決めを行わず、自由とすることとしたが、その中には、例えば、「スイ」「ズイ」「グイ」「グエ」「グオ」「キエ」「ニエ」「ヒエ」「フォ」「ヴォ」等の仮名が含まれる。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규정은 강제적으로 제약하는 형태가 아닌 가능한 자유를 보장하는 가이드 라인의 제시인 것이다.

[第1表]

<清音>

<濁音・半濁音>

ア	カ	サ	タ	ナ	ハ	マ	ヤ	ラ	ワ				ガ	ザ	ダ	バ	パ
イ	キ	シ	チ	ニ	ヒ	ミ		リ					ギ	ジ		ビ	ピ
ウ	ク	ス	ツ	ヌ	フ	ム	ユ	ル					グ	ズ		ブ	プ
エ	ケ	セ	テ	ネ	ヘ	メ		レ					ゲ	ゼ	デ	ベ	ペ
オ	コ	ソ	ト	ノ	ホ	モ	ヨ	ロ					ゴ	ゾ	ド	ボ	ポ

<拗音>

<新方法>

キャ	シャ	チャ	ニャ	ヒャ	ミャ	リャ	ギャ	ジャ	ビャ	ピャ			ツァ	ファ		
													テイ		ファイ	ダイ
キュ	シュ	チュ	ニユ	ヒユ	ミユ	リュ	ギユ	ジュ	ビユ	ピユ			デュ			
												シェ	テェ	ツェ	フェ	ジェ
キョ	ショ	チョ	ニョ	ヒョ	ミョ	リョ	ギョ	ジョ	ビョ	ピョ			ツォ	フォ		

ン(撥音) / ッ(促音) / ー(長音符号)

또한 다음 「第2表」를 제시하고 이는 「外來語や外國の地名・人名を原音や原つづりになるべく近く書き表そうとする場合に用いる仮名」라 하고 있다.

[第2表]

		クァ			グァ		ヴァ				
	ウイ	クイ	ツイ				ヴィ				
				トウ		ドウ	ヴ	テユ	フユ	ヴェ	
イエ	ウエ	クエ					ヴェ				
	ウオ	クオ					ヴォ				

여기에서 위에 보인 새로운 가나 조합과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위와 같은 「第2表」가 필요하게 된 이유와 그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표기법에 의해 기존 표기체계에 존재했던 공백이 채워졌고, 한편으로 는 이를 통해 기존 일본어에 존재했던 음운론적 공백 또한 매우는 결과를 낳게된 것이다. 예컨대 「タ行」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래어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和語 레벨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タ	ca	ダ
ti	チ	di
tu	ツ	du
テ	ce	デ
ト	co	ド

→

タ	ツァ	ダ
テイ	チ	デイ
トウ	ツ	ドウ
テ	ツェ	デ
ト	ツォ	ド

「内閣告示」에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자표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第1表・第2表に示す仮名では書き表せないような、特別の音の書き表し方については、ここでは取り決めを行わず、自由とする」라는 단서를 붙여, 이와 같은 告示가 절대적인 규정이 아님은 물론이고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표기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외래어의 표기법과 관련된 규정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관습화되어 정서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기 방식이 기존 정서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하 먼저 『浮雲』(1887)의 경우를 통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던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浮雲』의 경우

여기에서는 소설에 있어서의 언문일치체의 창시라고 일컬어지는 二葉亭四迷의 『浮雲』(1887)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浮雲』에 있어서의 외국어에 대한 표기는 실로 다양한데, 飯田(2002)는 그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①한자에 히라가나 루비: 洋袴づほん, 土耳其とるこ, 論事矩ろんじつく, 摺付木まつち
- ②한자에 가타카나 루비: 摺付木マツチ, 申出プロボス, 眞理トルス, 俱樂部クラブ
- ③루비 없는 한자 표기: 仏蘭西, 羅紗
- ④가타카나에 「」를 붙이고 주석과 루비: 「스チューデント」がくせい[學生]
- ⑤가타카나 표기: ハンケチ, ハンカチーフ, レモン, ペンキ
- ⑥히라가나에 「」: 「たいむす」「おぶちかる、いるりゆうじよん」「えれくとりあるましん」
- ⑦밑줄을 치고 히라가나 표기: はアバアと、すぺんさあ、すうみんとん、さるれえ
- ⑧원어에 루비를 붙이고 주석: Woman's revengeウーマンズ レヴェンヂ(婦人の復讐), Let us go onレット アス ゴー オン(行かう)

이상과 같이 현재는 가타카나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외국어의 표기법이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매우 복잡한 양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서법이 정리되면서 외국어·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할 것이 강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어에 대한 한자 표기, 히라가나 표기, 가타카나 표기 가운데서 가타카나 표기가 선발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외국어에 대한 특별 대우 즉 우리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 취급하는 측면과 더불어, 가타카나가 지닌 시각적인 효과 즉 문자상의 시차성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가타카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적극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일환으로서 이하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소위 외국자료에서는 어떠한 표기상의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 외국자료에서 보이는 표기상의 경향

大槻玄幹(1785~1837)의 著로 알려져 있는 『和音唐音對註 西音發微』(1826)는 다음에 제시하는 범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和蘭語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²⁾.

本編ヲ述スル職トシテ之由ル所ハ、和蘭言詞ヲ譯スルニ臨テ、直譯ト義譯ヲ作ス可カラザル者ハ、唐山音ヲ以テ對譯スルニ、從來其譯字ニ窮スル者多シ。而今此對註ニ因テ、譯者ノ勞ヲ省クノミ。

이러한 목적을 갖는 『西音發微』에는 일본어의 가나 및 그 음에 대해 논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アサ スシ ヌス シセ ヌソ
 此經ノ音前例ノ如キ重音也 濁音ハ ザ ジ ズ ゼ ゾ ニシテ
 半濁ハ ヲサ° ヲシ° ヲス° シセ° ヌソ° ナリ
 テタ テイチ テツ テテ 테ト
 此經ノ音前例ノ如シ 濁音 ダヂ ツテ ド 半濁音ナシ
 ハハ 히ヒ 하フ 히에 히호
 此經ノ音前例ノ如シ 濁音 바 비 브 베 보
 半濁 바 피 프 페 포 之別ニ
 喉音ノ ハ△ 히△ 프△ 헤△ 호△ 아리 皇國此音아리테其假字ナシ

2) 이하 인용문은 筑波大學 소장본(チ400-11)에 의함.

위의 「ㄹㅅㅏ, ㄹㅅㅓ, ㄹㅅㅑ, ㄹㅅㅓ」등에서 볼 수 있듯이 「ㅅ」는 「스ㅏ」로 구성되고 「ㅌ」는 「테ㅏ」로부터 그리고 「ㅏ」는 「하ㅏ」를 조합하면 만들어진 음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梵語 연구가로서 『反音作法』(1093)나 『悉曇要訣』(1101) 등의 저자인 明覺(1056-?)가 제시한 가나에 의한 反切法³⁾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두 글자를 조합하면 하나의 음을 이룬다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西音發微』에는 「ㅅ[°]」「ㅅ[˚]」「ㅏ[△]」「ㅓ[△]」와 같이 기존 가나와는 다른 형태의 표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위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ㅅ[°]」는 「ㅌ」와 「ㅏ」를 합한 것이다 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가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음인 [tsa]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부호를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시 『西音發微』가 和蘭語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헌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가나를 조합>하는 방식과 <부호를 첨가>하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존 가나만을 사용했을 때에 발생했던 和蘭語 번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西音發微』에서 보인 표기상의 특징과 거의 형태를 같이 하는 자료로서 清水卯三郎의 『ゑんぎりしことば』(1860)를 들 수 있다. 본서에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일본어에 대한 영어가 가타카나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때 「ㅅ[˚]」와 같이 <부호를 첨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唐話纂要』(1718)에도 사용되는 「ㄸㅇ」와 같은 특이한 표기법이 채용되어 있다.

むすめ	ドㅇトル	みかづき	ニㅇウムーン
つゆ	ㄸㅇウ	ねづみ	マㅇウス
3	ㅅ [˚] 리이 三	13	ㅅ [˚] ル텐 十三

위에서 가나 사이에 쓰인 「ㅇ」는 만일 「ㄸㅇ」를 和語의 읽는 법에 준해서 읽을 경우 「ヂョー」와 같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서도 『西音發微』와 『ゑんぎりしことば』는 표기 방식에 있어서 발상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 ㅅ[˚] はㅅ[˚]와 ㅓ[˚]의あいこゑなり。これははのあいだにしたをすこしいだして、うちにひきいれてㅅ[˚]といふこゑなり。
- ㅌ[°] はㅌ[°]와 ㅓ[°]의あいこゑなり。ㅅ[°] はㅌㅏ、またㅅ[°] はㅌㅓ、またㅌ[°] はㅌㅓのごとく。

3) 가나에 의한 反切法에 대해서는 高山(1993)에 자세한 기술이 보인다.

즉 여기에서도 <가나를 조합>하는 방식과 <부호를 첨가>하는 방식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도 후기 문헌자료에는 다양한 표기 방식이 엿보이는데, 이하 외래어에 대한 정서법이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면서도 외래어의 접촉이 왕성했던 에도시대에 저술된 소위 외국자료를 중심으로, 외래의 말을 가나를 통해 시각화하는 방식 가운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외래의音が 어떻게 시각화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에서 보인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과 그리고 『西音發微』의 방식 등을 참조하면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 (1) 기존 가나 가운데 발음상 또는 시각상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하여 표기.
- (2) 새로이 글자를 만들어 표기.
- (3) 기존 가나를 조합하여 표기.
- (4) 기존 가나에 부호를 첨가해서 표기.

이 가운데 첫 번째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일본어 문자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언어적 동질성을 파괴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 방식일텐데 이하 <가나 조합형>과 <부호 첨가형>으로 나누어 각종 문헌자료에서의 실제 표기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가나 조합형

여기에서는 우선 일본 최초의 그림 설명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寺島良安 저 『和漢三才圖會』(1712)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서 卷13의 「異國人物」에는 조선에 관한 기사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朝鮮國語」라는 제목으로 한자를 표제어로 하는 112항목의 韓語가 게재되어 있다. 이 때 한글은 쓰이지 않고⁴⁾ 대신 가나와 마나(眞名)가 쓰이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인다.

地 すたぐ 米 びさる

위에서 「地」와 「米」에 대해 「すたぐ」「びさる」와 같이 표기한 부분을 보면, 우선 有韻

4) 本書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그 말이나 그 물건은 외국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 만을 단순히 보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즉 한글을 보일 이유는 특별히 없으며 또한 한글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다.

尾字에 대해 좁은 모음인 [u]를 첨가하는 방식은 한자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외래어 표기법과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것이 없는데 비해, 頭子音의 처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すた」와 「びさ」와 같은 가나 조합을 통해, 즉 일본어의 語 구성상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글의 격음을 시각화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가나 조합에 의해 얻어지는 결과가 韓語의音を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訓蒙字會』(1527刊)를 보면⁵⁾ 「地」는 「짜디」, 「米」는 「쌀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글 철자법의 영향이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韓語의 1음절을 다음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나가 조합>되는 모습을 『和漢三才圖會』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雨森芳洲(1668~1755) 저 『全一道人』(1729)을 살펴보기로 한다. 『全一道人』은 소위 朝鮮資料와는 역방향, 즉 韓語를 일본어의 가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타카나로 치환하여 韓語 학습에 이용한 자료이다. 芳洲는 当代에는 거의 유일하게 韓語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학자였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동시에 韓語뿐만 아니라 中國語를 포함한 언어 일반에 대한 높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⁶⁾.

5) 일본에는 현재 다음에 보이는 세 종류의 『訓蒙字會』의 異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 ①比叡山 延曆寺의 叡山文庫 소장본(活字本)
- ②東京大學 中央図書館 소장본(版本)
- ③尊經閣文庫 소장본(版本)

이러한 異本の 존재뿐만 아니라 에도 후기 한자음 연구에서도 『訓蒙字會』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太田全齋(1759~1829)의 『漢吳音圖』(1815序), 行智(1778~1841)의 『諺文解』(1834), 白井寬蔭(生沒年未詳)의 『音韻仮字用例』(1860刊)와 『朝鮮諺文字會』(1860成), 그리고 黒川春村(1799~1866)의 『音韻考証』(1862成) 등에서 『訓蒙字會』가 일본 한자음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訓蒙字會』는 일본에서도 널리 유포되어 다양한 형태로 참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6) 芳洲 晩年인 1754년에 저술된 수필 『たはれぐさ』에는 <일본어에는 「音調」를 나타내는 「四聲」이 없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인이 詩(漢詩)를 만드는 것을 비평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芳洲는 일본어와 韓語, 거기에 중국어를 덧붙여서 3개국의 말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もろこしの字音は、四聲そなはり。唇、舌、牙、齒、喉のわかちあざやかなれど、からの字音は、三聲のみありて、上聲去聲わかれず。されど唇、舌、牙、齒、喉のわかちはあるなり。此國の字音は、字ごとに平聲のごとくよみて、上聲去聲もなく、又入聲もなし。ふつくちきのつきたる字は、入聲なりとおぼゆれど、これもちにてとふるときは、碎音となり、入聲にはあらず。唇、舌、牙、齒、喉、そのわかれなきにしもあらねど、國のならはし、くちびるがちにものいへるゆゑにや、五音あざやかならず。釋徒の誦經に、いまも四聲わかちてよめるあり。これはもろこしにわたり、そのことばしれる祖師の、此國にも、五音をつたへんと、心をつくしをしへたるなれど、もと此國のなき事なるゆゑ、いまになりては、其のりにあたらざる字音のみ多し。詩は音調をこそおもしろし。この國の字音にて、もろこしの詩つくるは、調子にかなはぬ笙ひちりきをもて、樂をかなづるにひとし。此後いくちよへたりとも、もろこし人、これはといへる詩つくる人はありがたかるべし。

위에 보는 바와 같이 芳洲는 중국어와 韓語를 비교해보면 韓語의 경우에는 「三聲」밖에 없지만, 그 대신 「唇、舌、牙、齒、喉」의 구별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어의 경우에는 「四聲」은 물론이고 「唇、舌、牙、齒、喉」의 구별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본인의 詩作은 「調子にかなはぬ笙ひちりきをもて、樂をかなづるにひとし」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全一道人』에서도 앞서 살펴본 『和漢三才図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기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땅 스타그	또흔 스토헤	깨쳐 스카이치야
째 스타이	쓰럼질 브스로델	두세번 토히소이반

히라가나가 아닌 가타카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나를 작게 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가나를 조합>해서 韓語의 1음절을 시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의 표기 방식은 공통된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소위 蘭學資料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青木昆陽(1698~1769) 저 『和蘭話譯』(1743)를 보겠는데 이 문헌은 前集과 後集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에 제시하는 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和蘭語 회화문 네 개와 짧은 서간문 하나에 대해서 발음과 번역어, 그리고 번역문을 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阿蘭陀ノ聲音我國ト大ヒニ異ナレバ、阿蘭陀文字寄合ノ委キヲ阿蘭陀人ヘ尋問スレドモ、口授ヲ專ラトシテ、筆記スルコトアタハズ。其言語我國ノ言語ニ比スレバ甚ダ倒シ。且助語多クシテ、會得シ難シ。因テ阿蘭陀話四條、書簡一篇ヲ譯シテ、ソノ大概ヲ示ス。名ツケテ和蘭話譯トス。(『洋學 上』p11)

위의 인용문을 보면 青木는 和蘭人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 말을 이해하고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제시하는 『和蘭文譯』(1751)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今春、スペルコンストの内、阿蘭陀人ニ聞モノヲ記シテ、和蘭文譯三集ト云。
(『洋學 上』p19)

이렇게 음성 언어를 통해 이해한 和蘭語를 青木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나로 시각화하고 있는가를 아래에 보이기로 한다.

weer 우에르(話譯)	wel 우엘(話譯)
uw यू우에(話譯)	duysternisse 듀이스테르니쎬(文譯)
heidinne 헤이데인네(文譯)	jnwundig 인우엔데키(文譯)
juwelier यू우에리얼(文譯)	kwikzilver 쿠윌키실헬(文譯)

위의 「우에」「우에」「듀」「우」등과 같은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青木는 <가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和蘭語를 가나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青木와 더불어 주목할만한 蘭學者로서 前野良澤(1723~1803)가 있다. 前野의 저작 가운데 『和蘭譯筌』(1785)을 보면 「hoest」에 대해서 「ウウズト」, 「luna」에 대해서 「ルユナ」와 같은 <가나 조합>에 의한 표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前野는 글자를 작게 쓰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字名ヲ註スルニ、彼音ヲ正ク譯シ難キモノアリ。故ニ旧譯ノ中ヨリ音韻相紛レザル者ト、彼此トニ近ク似タル者トヲ取テ、コレヲ用ユ。凡、讀法、「エフ・イエ・エル」等ノ如キ、小字ヲ附スル者ハ、「フ」ト呼ビ、各其小字ノ音ヲ帶テ發スベシ。「キュウ」ハキ・ユノ二字合シテ、一音ヲ爲者ニシテ、「ウ」ハ其音韻ナリ。(『洋學 上』p104)

凡、讀音ノ國字ヲ用ル例、○ア等<イ・ウ・エ・オ>五韻字小書スル者ハ、其上ノ字ヲ引呼スルナリ。但、「ウ」字大書スル者ハ、上字ニ合セズ、別ニ「ウ」ノ全音ヲ呼ブナリ<「コウド」ノ如キ是ナリ。○「코오드」等呼브可カラザラン코トヲ欲스>。○「フ」字、旧上字ノ引呼비用ル者アリ。而ニ今コレヲ從ハズ。須ク全音ニ呼브ベシ。每ニコレヲ大書シテ、以テ其分別ヲ誌ス。○二字合書スル者ハ、二字一音ト爲テ呼브ベシ。○字ノ左肩ニ小字ヲ加ル者ハ、其加字ノ音ヲ帶テ、本ヲ發スル也。○「쯔」字ヲ右脚ニ添ル者ハ、本字ヲ促呼스ルナリ。

(『洋學 上』p111~112)

위 인용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キュウ」ハキ・ユノ二字合シテ、一音ヲ爲者ニシテ」와 같은 설명과 「二字合書스ル者ハ、二字一音ト爲テ呼브ベシ」라고 하는 부분이다. 즉 앞서 언급한 反切法의 논리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小字」의 경우에는 그 「音ヲ帶テ發스ベシ」이지만 「大書」한 것은 「上字ニ合セズ、別ニ「ウ」ノ全音ヲ呼브ナ리」라고 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前野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和語의 읽는 법을 적용하면 「코오드」가 되어버리는 「코우드」에 대한 주의로서 和語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가나를 사용하는 이상에는 和語의 읽는 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거꾸로 「小字」사용의 당위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⁷⁾.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 조합>을 통해 외래의音を 시각화하는 방식은 외국자료에 널리 보이는 경향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게된 논리적 배경에는 反切法이 있

7) 이러한 「小字」를 이용하는 방식은 尺振八, 須藤時一郎 述의 『傍訓英語韻礎』(1872)에도 보인다. 이하 그 몇 예를 제시한다.

vine	ヴァイン	vest	ヴェスト
cube	キューブ	fatal	フェーテル
vital	ヴァイテル	giant	ジャイエント

으며, 또한 <가나를 조합>할 때에는 和語의 읽는 법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시차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부호 첨가형

다음에 보이는 『御製水懺』(1670) 卷末의 「國字旁音例」는 중국음을 가나로 표기한 후에 그 표기가 어떠한 음을 나타내는가에 대해 설명을 한 부분이다.

凡旁音有用小圈於上者矣。如 イ° キ° 字、須撮唇舌居中而呼之。如 サ° 字音、又自齒頭而出猶合ツア二字而呼之也。如 ソ° 字音、又自齒頭而出猶合ツヲ二字而呼之也。如 セ° 字音、又自齒頭而出猶合チェ二字而呼之也。如 テ° ト° 字、須合上下齒而呼之。猶不正呼其体而唯呼其用也。如 バ ビ等字、先閉唇激而發音余倣此。

위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먼저 「イ°」「키°」와 같은 표기는 각각 [wi] [kwi]와 같이 脣音적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가나에 「°」를 첨부하는 것을 통해 통상적인 가나와는 다른 音的 요소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サ°」「ソ°」「セ°」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다. 즉 「サ°」는 「ツア」를 합해놓은 것이고 「ソ°」는 「ツヲ」, 그리고 「セ°」는 「チェ」를 합해서 발음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두 글자를 합하면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4.1.에서 살펴본 反切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나 조합>에 의한 방식과 기본적인 원리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御製水懺』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호를 첨가>하는 방식을 덧붙여서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가나 조합>에 의해 새로운 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인식에 배경을 두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약속이 전제가 된 부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표기상의 번잡함뿐만 아니라 和語의 표기법과의 충돌 내지는 혼동을 피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에 반탁음 부호를 더해서 기존 가나와는 차별화되는 음성을 시각화하는데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가나로는 나타낼 수 없는 일본어에 있어서의 표기 및 음운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岡島冠山(1674~1728) 저 『唐話纂要』(171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把	バア	柄	ピン	不	ブ
再	サ° イ	讚	サ° ン	早	サ° オウ
沒	モ°	根	ケ° ン	客	ケ°

위에 보인 「°」에 대해 沼本(1990)는 각각 「パ」는 「p-音」을, 「サ°」는 「ts-音」을, 그리고 「モ°」와 「ケ°」는 「-ə音」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역시 앞서 보인 『御製水懺』의 예와 마찬가지로 부호 첨가를 통해 일본어의 음운론상의 공백을 극복하려 했던 시도로서 이해된다. 또한 「サ° オウ」에 보이는 「○」는 「ソ°ー」로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기상의 고안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에 의해 외래의音を 시각화한 자료로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아래에 보이는 자료에도 「ト°ウ」「ウエ」「テイ」 등과 같이 <가나 조합>에 의한 방식이 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本木正榮編『諸厄利亞興學小笈』(1811)

touch stone	ト° ウツ ストーネ	試金石
conduit	コント° ウイト	水樋
the twilight	テ ト° ウエイレイト	黄昏
twelve	ト° ウェルフ	十二
twenty two	ティウインテイ ト° ウ	二十二
tooth	ト°ース	齒
toe	ト°ウ	趾
tool	ト°ール	饌器

本木正榮等編『諸厄利亞語林大成』(1814)

thousandth	ト° ウセンツ	千番
touth wood	ト°ース ウート	朽薪
truce	ト° 리ュー스	治平
twice	ト° ウ이스	二度 𠵼𠵼°

田宮仲宣『和蘭文字早讀伝授』(1814)

さ° し° す° 세° そ° → tsa tsi tsu tse tso

한편 「°」와는 형태가 다소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雨森芳洲의 『全一道人』에는 가나에 점을 세 개 더하는 형태가 보인다.

제	ソ°°°イ	밧기나갈제	ハ°°°ツカイナカルヅイ
저제	テ°°°사이	붓채질	フ°°°ツ사°°°이질
파하매	ハ°°°하마이	붓채여	ホ°°°°°ツ사°°°야

위와 같이 『全一道人』에는濁点を 3개 찍은 특이한 표기법이 보인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三濁点이라 칭하고자 하는데, 三濁点은 和語 레벨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한글을 가나로 轉寫할 때에 한해 사용된 것으로, 그 분포를 보면 「ハ[〃]」, 「ヒ[〃]」, 「フ[〃]」, 「ヘ[〃]」, 「ホ[〃]」, 「サ[〃]」, 「テ[〃]」, 「ソ[〃]」와 같이 되어 있다. 이 가운데 「ハ[〃]」행에 첨부된 三濁点의 경우에는 앞서 본 『唐話纂要』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韓語의 兩唇 破裂音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韓語의 齒莖 破擦音을 轉寫⁸⁾한 가나가 「サ[〃]」, 「チ[〃]」, 「ツ[〃]」, 「テ[〃]」, 「ソ[〃]」와 같이 일관성 없는 분포를 보이는 점에 있다. 拙稿(1996)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全一道人』에 있어서의 三濁点에 관해 소견을 밝힌 바가 있다. 그 가운데서 「セ[〃]」가 쓰이지 않고 「テ[〃]」가 쓰인 이유는 「セ[〃]」의 口蓋性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즉 韓語의 특정音を 가나로 轉寫하는데 있어서 韓語의 音価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音価도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韓語의 발음상의 특징에 대해 민감했던⁹⁾ 芳洲가 三濁点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즉 <부호를 첨가>하는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역시 기존 가나와는 차별화되는 음성을 시각화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4.1.에서도 보았듯이 芳洲의 방식은 <가나 조합>과 <부호 첨가>의 혼용이었다는 점이다.

이상 <부호 첨가>을 통한 외래 음의 시각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채용한 배경에는 <가나 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和語의 읽는 법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서도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거의 私的으로 행해지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일본어에 새로운 濁音 專用자가 개발되는 대신 「[〃]」(濁点[=符号])을 기존 가나에 더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었던 논리를 음미해 보면, 「ト[〃]」, 「サ[〃]」, 「ハ[〃]」와 같은 표기가 쓰일 수 있었던 개연성과 더불어 그것이

8) 「サ[〃]」, 「テ[〃]」, 「ソ[〃]」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표에 보이는 숫자는 용례 수를 나타낸다.

	語頭			語中		
	ㄸ	ㅌ	ㅍ	ㄸ	ㅌ	ㅍ
サ [〃]	7	13		6	7	
テ [〃]	24	8		8	9	
ソ [〃]	19	13	1	11	8	3

9) 『全一道人』의 「凡例」에는 다음과 같이 韓語의 言文 不一致에 대한 지적이 보인다.

韓語の内、諺文にてかけると言葉にいへるとはちかひたる事おとし。大葉其例を後に記せり。これを以て類推すへきにや。

이와 관련하여 芳洲가 들고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한림 翰林 ハルリム 만리 万里 マルリ
 신령 神靈 シルリヨグ 안해 妻 アナイ
 심히 甚 シミ 알피 前 アツヒ[〃]

이와 같은 예를 들어놓고 芳洲는 다음과 같이 附言한다.

少年の人、諺文をそこそこにしり、諺文の書をよむをあししとするにはあらず。開合清濁音便をしらすして、みたりによむをあししとするなり。

이를 통해 『全一道人』에 보이는 한글의 가나 轉寫가 음성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화되지 못했던 이유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가타카나를 통한 표기 상황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외국자료 속에서 외래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자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가 갖는 음운론상의 공백을 뛰어넘어 가급적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도시대 문헌들에는 <가나 조합>과 <부호 첨가>에 의한 방식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외래音が 시각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가나 조합>을 통해 외래의 음을 시각화하는 방식은 외국자료에 널리 보이는 경향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게된 논리적 배경에는 反切法이 있으며, <가나를 조합>할 때에는 和語의 읽는 법과의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가타카나와 「小字」를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시차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가나 조합>에 의해 새로운 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인식에 배경을 두고 도입된 <부호 첨가> 역시 和語의 표기법과의 충돌 내지는 혼동을 피하는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표기상의 번잡함을 해소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ツァ」「ティ」와 같이 <가나 조합>에 의한 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자음에 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해된 反切法과 한글 및 로마자와 같은 음소문자와의 접촉이야말로 현재 <가나 조합>에 의한 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參考文獻】

- 李基文(1971)『訓蒙字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p.7-48
- 飯田晴巳(2002)『明治を生きる群像』, おうふう. p.24-25
- 久保田篤(2002)『江戸時代後期の平仮名・片仮名について』, 『日本語の文字・表記』, 國立國語研究所. p.59-97
- こまつひでお(1970)『不濁点』, 『國語學』80. p.1-29
- 高山知明(1993)『仮名による反切法と法華經音義における反切の理解』, 『小松英雄博士退官記念日本語學論集』, 三省堂, p713-726
- 沼本克明(1990)『半濁音符史上に於ける唐音資料の位置』, 『國語學』162. p.1-12
- 関丙燦(1996)『『全一道人』の三濁点について』, 『日本語と日本文學』23. p.23-33
- 『諳厄利亞興學小笈』(和裝本)三省堂
- 『諳厄利亞語林大成』(和裝本)三省堂
- 『大阪女子大學藏 日本英學資料解題』(1962)大阪女子大學
- 『大阪女子大學藏 蘭學英學資料選』(1991)大阪女子大學
- 『唐話辭書類集』長澤規矩也解題(1972)汲古書院
- 『朝鮮物語』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80)京都大學國文學會
- 『洋學 上』日本思想大系64(1967)岩波書店

要 旨

本論文は、今日のカタカナによる表記状況を再確認し、進んでは江戸時代を中心として、いわゆる外国資料のなかで、外來の異質的な要素がどういう方法で文字化されているのかを確か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原音になるべく近く書き表そうとする際に露見する日本語の音韻論上のすきまをどういう形で埋めているのかをしてみることになる。

その結果、江戸時代の文獻では、〈仮名の組み合わせ〉と〈符号の添加〉といった手法を通じて通常の仮名では書き表すことのできない外來の音を視覚化していることを確かめた。このうち、〈仮名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外來の音を視覚化する手法が外国資料で広く見られるわけであるが、この手法を採用した論理的な背景には漢字音の受容の過程で理論的に理解された反切法があること、そして仮名を組み合わせる際には和語の読み方との衝突をできるだけ避けようとして、カタカナや「小字」を使用するなど、それなりの視差性の確保に力を注いでいたことなどを明らかにした。

一方、このような〈仮名の組み合わせ〉といった手法を正確に理解した上で導入した〈符号の添加〉も、やはり和語の表記法との混同を避ける効果を生み出すだけでなく、表記上の煩雑さを解消する結果となることも明らかにした。

最後に、今日は、「ツァ」「ティ」のように〈仮名の組み合わせ〉による表記が一般にとられているが、これは漢字音との関連で広く知り渡っている反切法理論の支えや、ハングルおよびローマ字といった音素文字との接触があったからこそ、現在のような状況を導き出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カタカナ語、外国資料、仮名の組み合わせ、符号の添加、正書法、反切法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일어일본학과
電 話 : 032-860-8061
e-mail : minbc@inha.ac.kr